

## 200자 안내

### 노자도덕경

盧在昱 엮음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 워낙 난해하고 딱딱한 글로 알려진 「도덕경」 81문장의 본래의 뜻을 해설하고, 현실의 정치와 연관지어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해준다. 또한 신학적 견지에서 성경을 인용, 비교분석하여 기독교와 도교가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문고 / A5신 / 256면 / 3000원

### 현대시의 이론

로만 야콥슨 외 지음 / 박인기 옮김

현대시가 제기하는 몇가지 질문들에 대한 러시아 형식주의자 및 체코 프라하학파의 해명을 주로 모아 엮은 책. 시란 무엇인가, 시인이란 무엇인가, 시적 언어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문학과 언어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 현대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해답을 준다. 권말에 「동구형식주의와 신비평주의」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지식산업사 / A5신 / 222면 / 4000원

### 숙명

한설야 지음

식민지시대 카프의 맹원으로 6·25전쟁 이후 북한문학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한설야의 대표단편집. 사회변혁의 주체적 입장에서 노동현실과 노동자의식을 형상화한 작품 6편을 같이 묶고,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설야 연구논저 목록을 정리해 수록했다.

태학사 / A5신 / 252면 / 3200원

### 홍사덕칼럼 3

홍사덕 지음

제11,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저자의 「라디오칼럼집」. MBC 라디오를 통해 인기리에 방송됐던 「목소리」를 「글」로 수습해 묶었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문제들을 비롯, 농촌을 살리는 길, 수출부진과 노사평화, 전국민의료보험 등 현단계 한국사회의 쟁점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돋보인다.

햇빛출판사 / A5신 / 308면 / 3500원

### 從屬의 政治經濟學 — 멕시코

스네키와 게이이치 지음 / 金鎮郁 옮김

멕시코 제조업을 소재로 제3세계에서 보이는 저개발 및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고찰한 연구서. 멕시코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를 파헤쳤으며 멕시코 자동차산업이 경제적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외의존경제가 국가의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이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비해 구체적 지역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범조각 / A5신 / 254면 / 5000원

### 남자의 눈물 여자의 웃음

황필호 지음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저자가 「삶이 무엇이고 묻는다면」 「길 위에서」 등에 이어 여덟번째로 펴내는 에세이집. 기존의 남녀상을 부정하고 남녀가 서로의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새로운 남녀상을 제시했다. 남성지배문화는 여성과 남성을 다같이 지배한다는 신념으로 바람직한 사랑과 결혼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또 철학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샘터 / A5신 / 286면 / 3200원

### 베트남공산당사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지음 / 김중욱 옮김

1930년 베트남공산당의 탄생에서부터 사회주의혁명의 전개, 사회주의의 건설과정을 쓴 공식 당사.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베트남인들의 투쟁과 당의 지도력이 어땠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베트남 50여년사를 5단계로 나누어 각 시기 중대사건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소나무 / A5신 / 238면 / 3300원

### 韓國 맛있는 집 789店

洪性裕 지음

「伯坡」라는 필명으로 신문지상에 「별미여행」을 연재해왔던 저자의 「향토미각순례」.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지역별로 각 지방 고유의 풍미를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집」들을 소개했다. 1987년 첫 출간 이래 증보를 거듭하며 팔린 책으로 이번에 나온 것은 제3판.

범양사출판부 / A5신 / 510면 / 4000원

### 꼬마 야동이의 세상보기

송영 지음

「선생과 황태자」로 잘 알려진 중견작가가 자신의 유년시절을 자전적으로 그린 장편성장

소설. 세상을 새로움으로 바라보고 부딪치는 꼬마 야동이의 기발한 삶과 행간마다 반짝이는 작가의 빛나는 감성이 소설적 재미를 높여준다. 사랑과 고통의 뿌리를 찾는 유년으로의 여로를 그린, 우리 모두의 자화상으로도 읽힐 수 있는 작품.

문학세계사 / A5신 / 210면 / 3000원

### 겨울강 건너 다시 만나리

김동훈 지음

1981년에 「아침이 오는 풍경」으로 「소설문학」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등단한 「교사작가」가 학생들의 고민과 방황, 꿈을 다룬 장편소설. 대학입시를 앞둔 여고생인 주인공이 겪는 사춘기의 갈등과 전인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리얼하게 묘사했다. 작가는 교사답게 현명한 극복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준다.

글사랑 / A5신 / 258면 / 3000원

### 現代中國論

건국대 중국문제연구소 엮음

70년대말부터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온 중국사회의 전반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책. 중국인 특유의 「중화사상」과 오늘날 권력의 핵심인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본질을 설명했다.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한 경제현황, 외교노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으며, 문학·예술·문화일반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로 중국사회의 발전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희성출판사 / A5신 / 350면 / 7000원

### 거꾸로 보는 퀴즈 어린왕자

쌩 맥취베리 지음 / 이상영 옮김

「어린 왕자」를 퀴즈와 게임 등의 방법을 동원해 새롭게 편집한 책. 「어린왕자」의 원문 번역과 함께 읽은 다음 그 줄거리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퀴즈로써 테스트해볼 수 있다. 줄거리를 응용한 게임과 우정에 대한 글을 곁들이고 있어서, 평면적인 책읽기를 지양하고 폭넓은 사고와 깊이있는 독서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동아 / A5 / 160면 / 3000원

### 도스시나타스

야콥 아란자 지음 / 강승현 옮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록큰롤에 나타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분석한 책. 록큰롤에 갖든 폭력찬미의 경향을 비롯해 록가수들의 해괴한 문신, 병폐적인 가치관 등 건전한 문화를 잠식하는 요소들을 비판하고 있다. 가사에 대한 분석과 록그룹의 행동분석으로 록큰롤이 파괴적이고 충동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록큰롤에 대한 색다른 이해를 제공한다.

문진당 / A5신 / 194면 / 3000원

### 수재도 문제아도 부모가 만든다

孫羽秀 지음

교사생활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관한 학부모들과의 상담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모아 엮은 자녀교육서. 자녀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IQ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문제아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예절바로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민지사 / A5신 / 272면 / 3200원

### 자연의 탐구자들

정해상 엮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발달하고 이용되어 왔는가를 통시적 맥락 속에 그 개략적 줄거리를 소개한 책. 난해한 도식 대신에 알기 쉽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각 시대를 지배했던 철학·과학사조를 토대로 하여 역사상 위대한 학자와 발명가들이 이룩한 업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검지사 / A5신 / 220면 / 3500원

### 한국사회성격과 도시빈민운동

김영석 지음

「도시빈민론」을 저술한 바 있는 저자의 도시빈민운동 연구서. 도시빈민의 계급적 성격을 검토하여 개념정립을 꾀했으며 취업, 주거, 교육, 재개발정책 등 빈민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살폈다. 한편으로는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빈민운동의 실태와 성격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침 / A5신 / 218면 / 3200원

### 이야기 數學史

李泰珪 엮음

한국수학사를 비롯 세계수학사가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발전해왔는가를 수학역사상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 엮은 책. 인물을 중심으로 수학세계가 심화되어가는 과정과 야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수학이론에 대해서도 주제별로 기술하고 있다. 「과학의 여왕」이라 불리는 수학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곁들여져 있다.

백산출판사 / A5신 / 422면 / 6000원

### 재미있는 인간심리

최광선 엮음

갓가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테마별로 분류하여 쉽고 재미있게 해설한 책. 「사람은 어떤 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가」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의 흥미로운 주제를 실생활의 구체적 사례를 동원하여 풀어냈다. 「교양인을 위한 심리학」을 지향하는 책.

기린원 / A5신 / 288면 / 3500원

## 머리 만들기

타고 아끼라 지음 / 정태원 옮김

압기력 위주로 길들여진 사고습관을 뜯어고쳐 다양한 사고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퀴즈게임으로 구성된 지능개발도서. '천재들과의 머리대결'이란 부제에서 보듯 파스칼, 뉴우턴, 퀴리, 데카르트 등 동서고금의 천재들이 제기했던 흥미로운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원제는 '두뇌체조'

산하 / A5변형 / 204면 / 2500원

## 여자 속에 여자

로버트 A 존슨 지음 / 정홍규 옮김

여성심리와 여성다움의 본질을 칼 융의 심리학적 개념과 그리스신화의 심리분석을 통해 규명한 책. 여자 속의 남성적인 것(아니무스)과 남자 속의 여성적인 것(아니마)의 실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에 이르러 두드러지고 있는 남녀 양성의 고정형 파괴현상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준다.

이문출판사 / A5변형 / 102면 / 1500원

## 꼬마 몽상가 유라

유리 코리네츠 지음 / 윤시향 옮김

1973년 모스크바에서 처음 발표되자마자 독일 등 10여국에서 다국어 번역되며 화제를 모았던 '어른을 위한 동화'. 모두 41개로 분절된 짧은 이야기들의 연속 속에 주인공 유라의 꿈과 그 꿈이 부딪치는 현실, 그리고 의식의 성장과정 등을 잔잔한 감동으로 그리고 있다.

푸른숲 / A5신 / 242면 / 3000원

## 계간지

### 著作権 (89년 겨울호)

[논단] ▲ 복제기기의 현황과 저작권 보호(허희성) ▲ 소련의 최근 저작권 동향과 한·소 출판교류 전망(이두영) ▲ 테이타페이스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최영호) ▲ 외국저작물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황광수) ▲ 저작권위탁관리업 발전을 위한 위상점검(김혜령)

[시론] 언론보도와 저작물이용의 한계(윤희창)

[판례평석] 잡지의 사진계재로 인한 초상권 침해(허희성)

[토론]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

[문제점검] 저작물의 교육목적 이용과 문제(김석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B5 / 120면 / 비매품

### 겨레문학 (89년 겨울호)

[특집] 매체를 통해 본 80년대의 문학 ▲ 운동으로서의 문학, 그一體化論(김준오) ▲ 열린 체계로서의 비평(구모룡) ▲ 변증법적 인식의 궤적과 전망(하창수)

[평론] ▲ 「闇夜」의 중요성(이보영) ▲ 한국 페미니스트 문학비평의 현황과 전망(송명희)

▲ 라캉의 프로이드 재해석(정형철)

[서평] 김중하 / 이영일 / 박경수

[소설] 윤진상 / 신종국 / 이석호 / 강인수

[시] 강인한 / 이동순 / 김혜순 / 양은순 / 오정환 / 강정화 / 오인철 / 이진욱 / 송재학 / 조은

[자료] 소설 東學黨(服部圖南居士)

地平 / A5신 / 292면 / 3000원

## 무크

### 地平 (제8집)

[평론] 지역문학운동의 현단계(구모룡)

[새로운 시인들] 김우태 / 동길산 / 박현호 / 송유미 / 이근대 / 이명숙 / 이진욱

[지평의 시인들] 강영환 / 김경진 / 김수경 / 신진 / 이달균 / 정일근 / 최영철 외

[서평] ▲ 각기 다른 시인의 궁극적 관심(남송우) ▲ 아픔의 뿌리(강영환) ▲ 삶의 두가지 모습(성기작)

열음사 / A5신 / 252면 / 3200원

## 반년간지

### 역사와 현실 (89년 하반기)

[시론] 역사학의 남북교류를 위하여(남지대)

[특집 / 1920~30년대 노동운동과 원산총파업]

▲ 원산에서의 식민지 수탈체제의 구축과 노동자계급의 성장(전우용) ▲ 원산총파업을 통해 본 노동자조직의 건설문제(김광운) ▲ 1930년대 원산지역의 혁명적노동운동(안태정) ▲ 토론요지(정리: 양상현)

[논문] ▲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김현영) ▲ 일제하의 자치운동과 그 성격(박찬승) ▲ 1930년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개과정(신주백)

[연구동향] 고려전기 사회사 연구동향(박종기)

[자료소개] ▲ 갑오개혁기 '수조안'의 분석방법(왕현종) ▲ 김봉우 편, 「일제하 사회운동사 자료집」(지수걸)

한울 / A5신 / 284면 / 4000원



## 화제의 책

### 무명소설·태항산록

김학철 지음



자전적 성장소설인 「격정시대」를 비롯해서 「해란강아 말하라」 「항진별곡」 등으로 독자들에게 낮은 연변작가 김학철의 소설집 「무명소설」(폴빛)과 「태항산록」

(대륙연구소 출판부)이 동시에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명소설」은 주로 80년대 후반에 창작된 단편소설로 김용의 왕성한 창작력을 느끼게 하고, 「태항산록」은 소설과 함께 산문을 싣고 있어 작가의 작품세계를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학평론가 오양호씨는 “고희도 넘은 이 작가가 건강하며 지금도 창작에 무비의 정열을 몰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작가가 형상화한 인간상을 “전형화된 낯선 인간들”이라고 분석.

두 출판사에서 동시에 출간됐지만, 작품이 겹치지 않는 ‘윤리성’도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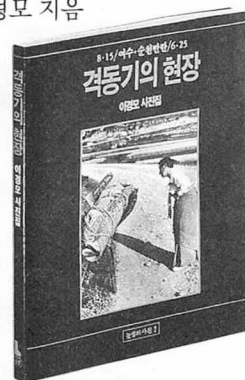
무명소설: 폴빛 / A5신 / 332면 / 4000원

태항산록: 대륙연구소출판부/A5신/324면/3500원

## 이색출판

### 격동기의 현장

이경모 지음



현대사의 격동기라 할 수 있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의 역사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집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15, 여순반란사건, 6·25 등 격랑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겪은 기쁨과 좌절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사진집은 사진으로 보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다.

1부 「45~48년」에는 해방의 감격과 함께 미군의 진주장면, 우익단체의 결성장면 등이 실려 있고, 2부 「48~49년」은 “불타는 여수 시가지”를 시작으로 이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치참한 살육의 모습을 담고 있다.

3부 「50~53년」에서는 직접적으로戰場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이채롭다. 낙동강변에 설치된 피난민촌이나 부역혐의자들의 모습 등 전쟁의 배면을 드러냄으로써 그 의미를 곱씹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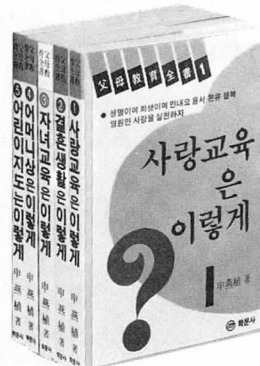
신문기자, 종군기자 등으로 활약한 작가의 렌즈가 담아낸 '역사'로 묶여진 이 사진집은 해방직후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이자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돋보인다.

눈빛 / A5변형 / 150면 / 10,000원

## 화제의 책

### 父母教育全書 (전5권)

신연식 지음



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족단위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런 사회변동에 의해 최근에는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부부 또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이 책은 이같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사랑교육은 이렇게」 「결혼생활은 이렇게」 「자녀교육은 이렇게」 「어머니상은 이렇게」 「어린이 지도는 이렇게」 등의 기획으로 이루어졌는데, 부부관계에서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제를 적절한 예화를 들면서 설명, 친절한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신학과 아동학을 전공한 저자의 학문편력이 보여주듯, 기독교의 사랑정신으로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권하고 있다. 10여년 전에 간행된 「부모교육」을 시대변화에 맞게 전면개정했다.

학문사 / A5신 / 각300면내외 / 각4000원